

바이오정보 산업 육성방안 추진

지경부, 관련정보 수집·분석·관리·유통 ... 연말 세부계획 수립

바이오정보 분야를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유전자 등 다양한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 유통하는 개념의 바이오정보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후 긍정적인 결론이 얻어지면 연말부터 세부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고 8월1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최근 바이오정보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바이오정보 산업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국내외 시장 동향과 주요 국가의 정책 흐름, 중장기 산업육성 추진전략 등을 살펴볼 계획으로 11월까지 용역 결과물을 제출받아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BT(생명공학)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생물학적 정보를 이용한 바이오정보 산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중장기 육성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바이오정보 산업의 개념을 정립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면서 “앞으로 용역 결과를 분석해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18>